

서울YWCA

2025 09+10
Vol.638



돌봄의 영성,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생명살림 바자회
더 나누면 더 커지는
이웃사랑 환경사랑

2025
서울YWCA
특별행사



현장 속으로
시민대화 워크숍



미술로 읽는 성경
교만으로 시작된
바벨탑 건설과
중도 하차

친애하는 지인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다. 인터넷으로 식사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한 '맛집'을 발견했고, 퇴근한 뒤에 그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인터넷에 명시된 정보와는 달리 식당 창문에는 휴무라고 적힌 용지가 붙어 있었다. 아쉬운 기색을 비치려던 찰나에 지인이 안도하며 입을 열었다. "다행이네요, 노키즈존이라서 마음에 조금 걸렸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민망해서 대답을 잊지 못했다. 그간 '노키즈존'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지인의 말이 내내 떠올라서 노키즈존과 관련한 기사를 이리저리 찾아 읽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2년 전, 바로 그날부터였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노키즈존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가.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영업주들의 논리는 언뜻 보기에 그럴듯하다. 아이들의 고성이나 울음소리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거나, 뜨거운 음식으로 인한 부상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장에 본인의 경험을 덧붙이며 영업주의 선택을 지지한다. 얼마나 피해를 겪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노키즈존을 시행하는 건 운영하는 영업주의 자유라고, 노키즈존이 아닌 곳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그런데 과연 노키즈존을 합리적인 조치라고, 최선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노키즈존은 그저 알팍하고 태만한 조치다. 왜 모든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지우는가. 문제 행동을 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아이들을 무력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서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와 배제는 늘 더 약한 존재를 향해 흐른다. 영화계의 거장 켄 로치의 <나의 올드 오크>에 나오는 한 대사가 그 역사를 선연하게 보여 준다. "삶이 힘들 때 우린 희생양을 찾아. 절대 위는 안 보고 아래만 보면서 우리보다 약자를 비난해. 언제나 그들을 탓해. 약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게 더 쉬우니까." 영업주들은 특정 대상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방지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모두가 느끼도록 이 비겁한 조치를 시급하게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편해해야 한다. 아이뿐만 아니라 양육자까지 일상에서 위축시키는 이 현상을, 수많은 '노섬바디존'을 양산해 낼 이 기괴한 현상을.



차별과 혐오는 더 약한 곳을 향해 흐른다

"노키즈존은 혐오를 공인하는 기폭제였다. 이는 차별, 혐오, 배제를 금기로 여겨 온 도덕적 제방을 무너뜨렸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거부를 점점 더 촘촘하게 실천하는 이기주의적 기류와 과도한 자기중심주의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 장하나 외 지음, 『노키즈존 한국 사회』 중에서

이희도 인문 교양서 출판편집자. 읽고 싶은 글을 매만지고 물성을 아름답게 입혀 세상에 내놓는 일을 합니다. 약자, 소수자, 돌봄, 전쟁,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에 긴밀한 텍스트를 매일 찾아 읽고 씁니다. @trauer_h

서울YWCA

2025년 9·10월호 638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9월 공동기도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생명 안에서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도 그 피조세계의 일부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서울YWCA가 이러한 창조의 신비 안에서, 각 지역이 긴밀히 연결되어 생명 살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10월 공동기도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한 해의 다채로운 결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선포했던 여성종교개혁자들을 기억하며 서울Y도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 4 돌봄의 영성과 YWCA 운동 ③
돌봄의 영성,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 6 Y 이슈
청(소)년평화통일캠프
- 8 현장 속으로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을 위한 시민대화 워크숍
- 10 미술로 읽는 성경
교만으로 시작된 바벨탑 건설과 중도 하차
- 12 서울YWCA 특별행사
- 14 미디어 모니터링
가족 예능의 친밀한 얼굴, 그 속의 성차별
- 15 생명살림 바자회
- 16 서울Y 소식
7·8월 뉴스
9·10월 행사 안내
9·10월 캘린더
- 22 라운드 테이블
함께하는 일상의 힘
- 24 회원중모 명단
- 28 후원 소식
- 29 알림터
- 30 환경 예세이
극한기후와 헝거스톤의 경고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안인서, 서울Y 5대 사무총장

『서울YWCA』 2025년 9·10월호 통권 제638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5년 9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봉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위원 김유애 나소영 이재숙 조희수 최문희 최혜란 편집 강민아 성지희 김현숙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
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
seoulywca



blog.naver.com/
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검색창에
서울YWCA

돌봄의 영성,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목사

8월 찌는 듯한 더위, 비 소식이 가뭄한 마음으로 괴산으로 향했습니다. 선인들이 풍류를 즐겼다는 속리산 자락은 짙은 녹음과 맑은 계곡들이 굽이치는데 그야말로 천혜 자연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그림을 그리는 선생님이 괴산에서 한달살이를 한다는 연락에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선유계곡 하류에 있는 작은 마을에는 전원주택 대여섯 채가 모여있는데요, 도착한 곳은 신상 한옥임에도 담도 심지어 대문도 없었습니다. 텃밭에는 차조기, 수국, 들국화, 강아지풀과 크고 작은 돌들이 느긋하게 경계를 만들고, 더위에 지친 어린 고양이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가 우리집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마당 한쪽 수레에는 옥수수가 한가득 쌓여있는데, 아침을 먹고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아랫집 아주머니와 옥수수 껍질을 까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열기를 한숨 내리고 이웃집에 삶은 옥수수를 돌리니, 기다렸다는 듯 토마토 한 바구니, 노란 감자 한 봉지, 블루베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직접 농사짓고 따온 작물이었지요.

오전 일을 마치고 한옥 별채에서 커피타임을 가졌습니다. 아주머니가 “내일은 한살림 돌봄 특강에 가야 하고, 다음 날엔 자수 모임이 있고... 참, 저녁에는 줌으로 춤 레슨이 있는데, 여기서도 바빠요. 그런데 시간 되면 특강 같이 갈래요?” 사실 도시에서는 벽 하나를 두고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얼굴을 마주치면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지요, 그런데 괴산에 온 지 서너 시간 만에 스스럼없는 사이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각자 인지증을 가진 노모,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는 중이었고, 심장병을 관리하며 일상을 다른 의미로 채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생의 무게에도, 삶의 고민 가운데도 넘버락 도어조차 없는 문을 오가며 먹거리를 나누고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듯, 가족을 돌보고 타인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전원에서의 짧은 휴가를 낭만적 돌봄으로 이상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치매가 아닌 ‘인지증’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긴 여운으로 남는 것은, 수다 속에 스며든 돌봄 이야기였습니다. 요양보호사도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모에게, 장애 등급이 낮아 오롯이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동생에게 가끔 같이 산책하고, 쓰레기 버리는 일을 돕고, 말동무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세밀하고 촘촘한 돌봄이, 안전한 돌봄 관계가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 너무 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시민 중심의 협동조합이 촘촘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개호(介護)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홀로 된 노인에게 전화 연락과 방문을 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소분화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지요. 이에 일본 정부는 2004년 치매를 인지증(認知症)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선포하고 인지증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합니다. 개호보험을 제도화하여 고령자 돌봄을 가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축합니다. ‘우리나라도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과 사람 간에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인지증 확진이 ‘네 삶이 끝났다’는 선고가 아니라는 것, 남은 생을 사회의 낙오자이자 돌봄의 수혜자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인간은 응당 돌봄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이 당사자와 사회 전체의 인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증이나 장애 당사자가 직장과 기관에서 존엄한 삶의 주체로 일하고 일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가족,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돌본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기사에서 39살에 인지증 확정을 받은 탄노 토모후미씨가 11년째 회사 생활을 하며, 인지증 환자를 위한 서포터로 일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탄노 씨가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다른 환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가족의 지원을 넘어 직장 동료와 사회가 그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믿고 서로의 불편함을 보완하며 돌보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가장 인간다운 삶

돌봄은 수혜와 시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적 질서가 생긴다는 점에서, 가족 특히 여성에게 사랑의 착취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질병과 장애, 어린이와 노년을 불완전한 인간 상태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관계와 폭력적인 시선을 만듭니다. 돌봄은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돌봄 관계는 위계적이거나 배제하거나 강요될 수 없습니다. 의존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서로를 보완하는 얽힘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하게 지으시고, 서로 의존하고 돌보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통해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돌봄 관계의 시작입니다. ♪

돌봄은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의존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서로를 보완하는
얽힘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청(소)년과 여성, 기억을 잇다! 평화를 함께 건다!' 2025 청(소)년평화통일캠프

서울Y는 7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청(소)년 평화통일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평화·통일 역사의 기록에서 소외되고 변두리에 놓여있던 '여성운동가'의 존재를, 우리의 일상인 '서울'에서 발굴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

캠프는 일제강점기·광복·한국전쟁(분단)·민주화운동·통일운동을 주제로 5개의 시기를 다룬다. 참가 청(소)년들은 오전에는 전문가 강의, 오후에는 평화·통일 역사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감하고, 이를 콘텐츠로 구성해 시민 확산 활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서울Y는 평화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청(소)년을 비전으로 평화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3회의 캠프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를 배우고, 통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관심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신청을 바란다. ♡

정리_양진화 평화운동팀 부장



서대문형무소 12 옥사 전면에 걸린 대형 태극기 앞에서

1차 (7월 26일) 일제강점기와 여성

독립운동, 여성의 이름으로 - 저항과 희망의 기록

강의 여성독립운동가의 역사
(신영숙 소장_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탐방 배재어린이공원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 배화여고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차 (8월 13일) 광복과 여성

광복의 새벽을 향해 - 자유와 평화의 빛을 찾아

강의 경계와 경계를 넘는 여성들, 북한여성과 북한이탈여성
(최은영 교수_ 이화여대 북한학과)
탐방 근우회터 → 정동제일교회 역사관 → 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3차 (8월 30일) 한국전쟁, 분단과 여성

전쟁의 폐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주제

강의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를 통해 본 여성, 평화, 안보
(윤보영 교수_ 동국대 북한학과)
탐방 용산기지둘레길 → 전쟁기념관 → 국립서울현충원 여성 의용군

4차 (9월 13일) 민주화운동과 여성

함성 속 그녀들과 함께한 민주주의

강의 청(소)년에게 보내는 한나렌트의 메시지
(김선옥 교수_ 숭실대 명예교수, 한국철학회 회장)
탐방 민주화운동기념관(구 남영동대공분실) → 서대문구~서울시청 광장 → 전태일기념관 → 명동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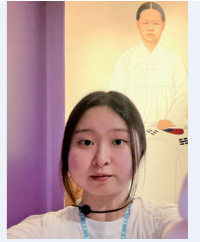
5차 (10월 11일) 통일운동과 여성

분단을 마주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다

강의 통일운동과 여성
(장상 대표_ 통일미래로)
탐방 근현대사기념관 → 문익환통일외국
탐방해설
1-3차 김진환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4-5차 신주백 소장(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여성독립운동가의 시대정신 본받아 소외계층에 손 내밀고 파

글_변하연 경기대학교 관광문화콘텐츠학과 24학번



캠프를 신청한 것은 인스타그램 덕분이다. 여름방학을 맞이한 나는 마침 일생일대의 성장통을 겪고 있던 참이었다. 작년 겨울부터 광화문·여의도 광장 등을 행진하며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어울린 뒤부터, 그들의 연설과 외침이 나의 양심을 아프게 때렸다. 외면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차별받은 약자, 여성, 피해자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의 평화로웠던 삶에 침입했다. 그래서인지 '여성', '평화'라는 단어가 자석처럼 이끌렸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캠프에 참여했다.

중학생에게 중2병이 있다면 대학생에게겐 대2병이 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명동으로 출발했다. 무교지만, 만약 기도를 들어줄 신이 있다면 나의 이 행동이 세계에 있는 여성·소외 계층을 살리는 데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다. 서울Y 회관은 내 생각보다 높았고, 규모 또한 컸다. 낮선 공기에 조금 긴장하고 1층 마루로 향했다.

1차 캠프 주제는 '일제강점기와 여성'으로, 강연을 통해 근우회의 창립과 여학생 시위, 여성노동운동, 여자광복군 활동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나라가 휘청일 때마다 여성이 역할을 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설득력 있는 연구자료, 지식과 지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다. 나는 20살이고 올해 6월 3일 조기대선을 치른 참이라, 우리나라 여성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과 열린 사회 구축이란 큰 꿈을 꾸게 됐다. PPT 흑백사진 속 여성들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내 또래 여성들 또한 죽어서 이름을 남기길 바랐다.

2차 캠프에서는 '광복과 여성'을 주제로 중국 연변 지역과 북한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반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직접 북한이탈주민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힌 실제 여성들의 삶과 사연을 알게 됐다. 강연 후 근우회터를 비롯해 유관순 열사가 졸업한 이화학당, 순국한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장례를 치른 정동제일교회 역사관 등을 탐방했다. 쉼 없이 유적지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듣다 보니 '시간여행'을 떠난 것만 같았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 떠난 모든 여성을 기린다. 그들의 시대정신을 본받아 나는 21세기 여성 청소년·청년 또는 사회 곳곳에 있을 소외 계층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 왜냐하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오늘의 대한민국은 사상 검증으로 인해 억울하게 고문받을 일도 없고, 취업에 불리할지언정 경찰에게 매 맞아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분들의 죽음이 고맙고, 겸손함을 미덕 삼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이 캠프를 기억할 거다. 광복 90주년에도, 광복 100주년에도 자랑스럽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것이다.



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 내 유관순 열사가 공부하던 교실을 재현한 전시공간에서

젠더 연대를 향하여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을 위한 시민대화 워크숍



서울Y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매주 목, 총 4회) 회관 마루에서 '갈등을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을 위한 시민대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짧은 시간 동안 페미니즘을 둘러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젠더 갈등'이

라는 이름 아래 대립과 분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성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논의의 부재와 공론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서울Y는 혐오와 분열의 프레임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대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민대화 워크숍을 기획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총 60여 명의 시민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세대 간 인식 차이, 혐오와 역차별, 성인지 감수성 부재, 청년 남성의 반페미니즘 정서 등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일상 속에서도 안전한 대화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나누었다.

6월 26일

성차별의 이해와 갈등을 넘어서는 대화의 필요성

첫 시간은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의 강의로,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로 분석했다. 청년 남성의 반페미니즘은 경제적 불안을 기반으로 정치화·시장화되며 극우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새로운 연대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3일

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권오현 대표(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한국의 대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대화는 공감과 존중의 출발점을 강조했다. 공론장은 결론보다 경청과 포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은하투표 결과를 기반으로 짝을 이루어 대화하며, 차이를 마주하는 경험을 직접 해보았다.

7월 10일

모두에게 안전한 공론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전세현 파트장(빠띠 시민대화팀 파트장)은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가이드의 개념과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촉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갈등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고민하며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또한 직접 젠더 관련 질문을 설계해보며, 공론장에서 질문이 갖는 힘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7월 17일

차이를 다루는 대화, 내가 기획하고 진행해본다면?

황현숙 이사(빠띠 이사)와 전세현 파트장이 함께 모의 시민 대화를 기획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이끌었다. 참여자들은 질문 구성부터 퍼실리테이션까지 전체 과정을 경험하며 대화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마주했다. 특히 상반된 의견 조율,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질문 등 현실적인 공론장의 과제를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성별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안전한 공론장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8월 21일부터 성차별 이슈 공론장 <세상을 바꾸는 대화>가 매주 목요일 저녁 온라인 줌을 통해 열리고 있다. 9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론장은 시민대화 워크숍을 통해 양성된 대화기획자가 이끌어가고 있다. DEI 원칙에 따라 참가자 누구나 말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하고 평등한 대화의 장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화>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공감과 변화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정리 박소영 여성운동팀 간사

참가신청



교만으로 시작된 바벨탑 건설과 중도 하차

전 세계의 인구는 2025년 7월 기준, 82억 3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의 언어는 약 7,000개 이상이라 한다. 본토어로 성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수 언어를 연구하는 기독교계 비영리단체 국제 SIL에서 발간하는 '에스놀로그: 세계의 언어(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7,164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 11장은 원래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으나 사람들이 성읍과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려 하자 하나님께서 서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도시 건설을 그만두고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건설이 중단되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창세기 11: 1-9)이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바벨(Babel)'은 '뒤섞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바벨탑 사건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BC 2,100년 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긴 일이라고 추정된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는 많은 수로 불어났으며 문명 또한 발달시켰다. 그러나 인간은 점차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해 인류 최초의 문명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거대 신전인 지구라트

를 많이 세웠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는 당시의 신전인 지구라트가 아직 남아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그 중심에 바벨탑을 건설하려던 가장 큰 이유는 창세기 11장 4절에 잘 나온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이어 견고하고도 하늘 높이 닿는 탑을 쌓아나갔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 행위는



피터 브뤼겔 「바벨탑」, 1563. 목판에 유채, 114x155cm.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교만이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었다. 즉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욕심과 교만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이름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9:1)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창 11:6)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 11:7)하시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심으로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었다.

피터 브뤼겔 「바벨탑」

16세기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의 위대한 농민화가 피터 브뤼겔(브뤼헬이라고도 함. Pieter Bruegel the Elder, 1525-1569)이 목판에 그린 유향 「바벨탑」은 벨기에 안트베르펜 바닷가에 우뚝 솟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밀한 묘사로 담고 있다.

건축물의 형태는 로마의 콜로세움과 비슷하며 한참 건설 중인 장면이다. 16세기 안트베르펜은 유럽의 국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 풍습 등이 혼재되어 있던 곳이었다. 탑의 왼쪽으로부터 후면까지는 발전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좌측 앞에는 건축을 독려하는 군주와 그를 호위하는 병사들 그리고 석재를 다듬는 석공들이 그려져 있다. 왕관을 쓴 이 군주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을 상징한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시날 땅의 바벨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큰 성읍을 건설했던 사람이다. 그림에서 건설 현장을 순시하는 왕의 절대적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같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담은 브뤼겔의 상상 속 바벨탑이 당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안트베르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타다시 가와마타 「토론토에 있는 정원 탑」, 2013. 약 800개의 중고 의자, 캐나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유니티드 교회 앞마당 하얀 밤 행사에서

타다시 가와마타 「토론토에 있는 정원 탑」

일본의 세계적 설치미술가인 타다시 가와마타(Tadashi Kawamata, 1953-)는 작품의 현장성과 협동성, 역동성을 중시하며, 작품이 전시되는 곳의 버려진 나무 판자, 폐건축 자재, 의자 등을 쌓아 올려 거대한 탑 모양의 설치미술 작업을 한다. 그의 재료들은 모두 리사이클링 되는 것으로 언젠가는 버려지고 폐기될 것들이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구조물은 폐기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 개발과 성장의 흔적,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문명의 허상을 암시한다. 한 예로 2013년 캐나다 토론토의 Metropolitan United Church 앞에 전시한 「토론토에 있는 정원 탑(Garden Tower in Toronto)」에는 약 800개의 중고 의자가 사용되었다. ♪

2025 서울YWCA 특별행사

함께 걷는 여성, 그 길 위에 희망이 자랍니다

낮설지만 솔직한
사랑 이야기

젤리피쉬

BEN WEATHERILL

2025. 9. 16 화 — 17 수 19:30 명동예술극장

|티켓| 전석 4만원 |문의| 02-3705-6000 02-870-4455

SYNOPSIS

스케그니스 해변.

켈리와 엄마 아그네스는 15년동안 매일 같은 바닷가 산책로를 걸으며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게를 잡는 것이 전부인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해변가 산책을 하던 중 켈리의 휴대폰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리고 켈리는 남자친구 닐에 대해 고백한다. 아그네스는 켈리의 남자친구 소식에 반가움도 잠시 닐이 아케이드에서 일하는 비장애인이라는 사실에 좌절과 분노에 휩싸이고 그녀의 일상은 견잡을 수 없이 빠르게 무너져간다. 그 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는데...

본 공연은 전 회차 릴렉스드 퍼포먼스 공연을 지향합니다. 신경다양성을 가진 모든 관객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위해 포용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합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의 행동이나 감각적 반응을 공연의 일부로 수용하고 객석 조명을 어둡지 않게 유지하며 출입과 이동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관객이 자유롭게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며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HARACTER & CAST

켈리 | 백지윤



“호박. 귀한 거야. 특별한 보석.”

27세. 다운증후군이 있다.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때론 사악한 농담도 서슴지 않는다.

“네가 해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켈리의 엄마. 다운증후군이 있는 딸을 보살피느라
녹록치 않은 삶을 살지만
누구보다 켈리를 사랑하고 걱정한다.

아그네스 | 정수영



닐 | 김바다



“켈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켈리의 남자친구. 아케이드에서 일을 한다.
가끔씩 세상의 편견에 힘들어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관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닐 | 이휘중



“살다 보면 사람들이 겁먹을 때가 있어.”

아그네스에 의해 집에 초대된 남성.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퀴즈쇼에 출연을 결심한 순수한 인물.

도미니크 | 김범진



가족 예능의 친밀한 얼굴, 그 속의 성차별

2025년 예능·오락 장르는 기존 인기 프로그램의 시즌제·스핀오프¹⁾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가족 예능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 정서 중심의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남성 중심 출연 구조와 성별 고정관념 재현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여성 출연 비중, 일부 장르에 국한

서울Y 모니터링에 따르면, 전체 출연자 942명 중 여성은 39.6%, 남성은 60.4%로, 지난 4년 평균과 유사한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특히 <몽쳐야 찬다4>는 여성 출연자가 전혀 없었고, <놀면 뭐하니>·<햐셈가이즈>도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여성 출연 비율이 높은 <골 때리는 그녀들>·<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등은 가족·육아·여성 중심 리얼리티로 예능 전반의 균형 있는 참여로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동일 소재인 축구 예능에서도 남성 중심 프로그램에는 여성 참여가 배제되었고, 여성 중심 프로그램은 남성을 포용하는 구조를 보였다.

중장년 남성 중심의 서사 장악

또한, 역할별 성별과 연령대 분석을 통해, 30-50대 남성이 주진행자·고정출연자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서사의 중심을 이끌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여성은 동일 연령대에서 주변적·보조적 역할에 집중되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연 기회가 급감했다. 특히 스포츠·공무원·요리사 등 전통적으로 남성 비중이 높은 직업군에서 여성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성평등 사례와 성차별 사례의 격차

성평등 사례는 6건에 불과했으나, <조선의 사랑꾼> 83회에서 남성 최초로 산후조리사 자격을 취득하며 아내의 출산을 돕는 남성 출연자 사례와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6회에서 비혼 여성의 독립적 출산 선택을 다룬 사례는 주목할 만했다.

반면 성차별 사례는 27건으로, 그중 성별 고정관념 사례가 20건(7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족 예능'에서 오빠가 여동생의 체형을 비하하거나, 남편이 아내의 외모를 부부 관계 조건처럼 통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가족의 친밀함을 명분으로 한 성차별적 태도와 외모 중심주의가 '농담'으로 소비되어 '가족이니까 괜찮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었다.



성평등 사례 (조선의 사랑꾼)

성평등 사례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이번 성평등 사례를 통해 관계의 재미와 감정 물입을 유지하면서도 성평등적 시선을 구현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남성의 돌봄 참여와 비혼 여성의 독립 출산 사례는 돌봄과 재생산을 성별과 무관한 공동의 선택·책임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향후 예능·오락은 출연자 다양성 확보와 제작진의 성차별적 문제의식을 통해 웃음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담는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

정리_서정인 여성운동팀 활동가

모니터링 대상	2025년 5월 다섯째 주 시청률 상위 30개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간	2025년 6월 9일-22일

1) 기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새롭게 파생되어 나온 콘텐츠 프로그램

2025 서울YWCA
생명살림 바자회

나누면
The 커지는
이웃사랑
환경

'The 나누면 The 커지는, 이웃사랑·환경사랑'

2025년 10월 23일(목) 10:00-15:00
서울YWCA회관 앞마당, 4·5층

문의 02-3705-6011 www.seoulywca.or.kr

2025 서울YWCA 정책워크숍



서울Y는 7월 8일 '2025 서울YWCA 정책워크숍'을 마포 채그로 스페이스에서 열었다. 이사·실무자 42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이명신 소장(비영리경영연구소)의 특강 '건강한 거버넌스와 이사회 역할'로 시작되어 서울Y 이사회 거버넌스 점검과 향후 이사회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 심층토론으로 이어졌다. 오후에는 비전사업 임팩트 회고와 비전 미래전략을 제안하는 발제, 조별 토론과 발표까지 알차게 진행됐다. 정책워크숍에서 공유된 평가와 제안이 지속가능한 서울Y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구를 위한 소비 수다방

서울Y는 7월 30일 지구를 위한 소비 수다방(지소방)을 회관 마루에서 개강했다. 지소방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앞에서 자신의 소비를 성찰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독서모임이다. 9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지소방을 통해 참가자들은 독후 소감과 공존을 위한 질문·제안 등을 자유롭게 나누며, 지구를 위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강남

도래소통캠프 '위플레잇'

강남청소년센터는 도래소통캠프 '위플레잇(We Play It)'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센터 일대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2024 청소년오피니언리더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와 협동·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총 40명의 청소년이 팀 빌딩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며 협동심과 소통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영등포

디지털 e-커머스 마케팅 실무 과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7월 15일 '디지털 e-커머스 마케팅' 실무과정을 개강했다. 9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정에는 서울시 거주 30-49세 이하 미취업 여성 19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 수료 후에는 웹디자이너, 온라인 쇼핑몰 마케터, 광고퍼포먼스 마케터, 판매처 광고 매체 운영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하다.



봉천

청소년 강릉 여행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관악구 거주 청소년 15명과 함께 강릉여행을 다녀왔다. '사랑시 여행구 아동'이라는 주제의 이번 여행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청년봉사단체 지중해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레이저서바이벌, 일몰 요트투어, 런닝맨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르떼뮤지엄, 하슬라아트월드 관람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도 키울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이 청소년에게 경험의 폭을 넓히고 또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

노원

'경력이음사례관리사업' 공모전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8월 6일 경력 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이모티콘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센터 강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경력이음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24-25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새로 일하기센터) '이모티콘 캐릭터 디자이너' 과정 교육훈련생과 기수료생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4편의 수상작은 전국 센터 경력이음 사업 홍보와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누리봄

여름가족캠프

누리봄은 7월 5일 여름가족캠프 '마음의 쉼터, 여름의 약속'을 강화자연휴양림에서 가졌다. 누리봄 가족 총 63명이 집라인, 서바이벌 게임, 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누리봄 가족 모두 자연 속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 따뜻한 교감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했다.



시민공론장 <세상을 바꾸는 대화>

성차별 이슈를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을 엽니다.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이드에 따른 안전한 대화의 장으로, 누구나 말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대화를 지향합니다.



- **일시** 8월-9월 (총 4회, 매회 19:00-21:00)
3회_9월 4일(목) 젠더 기반 폭력
4회_9월 11일(목) 혐오의 정치화
- **대상** 매회기 품격 있는 대화로 세상을 바꿀 시민 40명
- **장소** 온라인 줌
- **신청** 서울Y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연결
- **문의** 02-3705-6097



신규 프로그램 안내

영등포 • 문의 02-858-4514(내선1번)

과정명	교육일정
사회복지현장실무자 양성교육	9월 29일(월) - 11월 14일(금) (월-금) 14:00-18:00
세무회계전문가 양성	9월 16일(화) - 11월 20일(목) (월-금) 14:00-18:00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노환경안내자 양성과정 기초	9월 1일(토) - 11월 8일(토) (매주 토) 9:00-18:00
한정식&김치 요리 실무	9월 3일(수) - 11월 19일(수) (매주 수) 9:30-13:30
전산회계 1급 자격증	9월 6일(토) - 11월 8일(토) (매주 토) 10:00-17:00
한국사 강사양성과정	9월 19일(금) - 11월 28일(금) (매주 금) 10:00-13:00

온 가족 참여형 게임 모두 돌봄ON(溫) 키트!



가정 내 불균형한 돌봄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서울Y가 개발한 실천형 키트는 가족 구성원들 다양한 돌봄(기획·실행)이 적힌 카드로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서로를 돌보는 온 가족 참여형 게임입니다. 이 키트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우리 집의 따뜻한 온도를 함께 높이고 싶은 분은 신청 바랍니다. (선착순 30개)

- **키트구성**
- 돌봄 카드 110장(기획 노동 카드 50장 + 실행 노동 카드 50장 + 빈 카드 10장)
- 돌봄 노트 1권(우리집 진단하기, 돌봄 시간표 작성, 돌봄 분담표 작성 등)
- **신청** QR 코드 연결
- **문의** 02-3705-6097 여성운동팀



'모두 돌봄ON(溫) 실천 키트' 신청

극단 축 공연 <의자는 잘못었다>

서울Y 회원동아리 '극단 축'이 <의자는 잘못었다>라는 작품으로 제11회 서울시민연극제 무대에 오릅니다.

- **일시** 9월 17일(수) 19:30
- **장소** 금천뮤지컬센터
- **문의** 경규선 단장 010-8909-2901

* 극단 축이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강습 안내

• 문의 02-3705-6030

발레핏

발레핏은 발레바를 이용한 발레와 필라테스 동작을 바탕으로 골반과 허리, 어깨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바디라인을 되찾아주는 운동입니다

- **강습 안내** 주 1회 (총 3타임 운영) : 70,000원
금 17:30-18:20
금 18:30-19:20
금 19:30-20:20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평화통일캠프 청(소)년과 여성, 기억을 잇다! 평화를 함께 건다!



평화통일 역사의 기록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운동가'의 존재를 찾아보며 평화·통일·역사·민주주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전에는 전문가 강의로 지적 호기심을 높이고 오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평화·통일의 현장으로 떠나요!

- **일시** 7월-10월(총 5회, 매회 10:00-16:00)
4회_9월 13일(토) 민주화 운동과 여성
5회_10월 11일(토) 통일운동과 여성
- **대상** 매회기 청(소)년 40명 내외
- **장소**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 서울
- **신청** 서울Y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연결
- **문의** 02-3705-6023

• **혜택** 참가비 무료, 점심 식사 제공
봉사활동 시간 등록
(피스액션 '기록의 재구성' 참여 시)

CALENDAR 2025 9

일	화	수	목	금	토
1 · 명예위원모임 11:00	2 위원회 재정부 11:00	3 · 지구를 위한 소비자다방 10:00	4 · 조찬북클럽 (11·18·25일) 7:40 · 성차별 이슈를 다루는 안전한 공론장 <세상을 바꾸는 대화> (11일) 19:00	5 · 씽크머니 교육 (12·19일, 우리동네키움센터 강동2호점) 15:00	6 · 은하수 x Y-틴 멘토링 10: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20일) 13:00
8 · 역대이사모임 11:00 · [특강] '증여와 상속, 아는만큼 절세할 수 있다' 13:00	9 이사회 10:00 · 중보기도회 13:00	10	11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여성참여팀 10:30 · 로컬푸드직매장 제로웨이스트 실천사업 중간점검 회의 13:30	12	13 특별회원 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그린Y·키다리학교 정기모임 (27일) 10:00 · 울력 정기모임 10:00 · 청(소)년 평화통일캠프 (4차)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15	16 2025 서울YWCA 특별행사 연극 「젤리피쉬」 19:30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17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누리봄Y 14:00	18 위원회 강남Y 10:15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19 위원회 강남Y 10:15 · 청소년평화아카데미 지도자 정기모임 17:00 · [간담강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 복잡한 역사와 현재 이해하기 19:0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대학·청년YWCA 임원협의회 15:00
22 위원회 봉천Y 11:00 평생체육팀 18:00	23	24	25 위원회 큰장날준비 14:00	26	27
29	30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CALENDAR 2025 10

일	화	수	목	금	토
		1 국군의 날	2 위원회 재정부 11:00	3 개천절	4 · 씽크머니 정기모임 (18일) 13:00
6 추석	7	8 대체휴일	9 한글날	10	11 · 그린Y·키다리학교 정기모임(25일) 10:00 · 청(소)년 평화통일캠프 (5차)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13	14 이사회 10:00	15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누리봄Y 14:00	16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여성능력개발팀 11:00 영등포Y 11:00	17 위원회 강남Y 10:15	18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특별회원 재교육 산후조리사·아기돌보미 가사돌보미·간병사 14:00 · 울력 정기모임 11:00
20 위원회 평생체육팀 18:00	21 위원회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22	23 생명살림 바자회 10:00	24	25
27 위원회 봉천Y 11:00	28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9	30	31 · 경기여고 평화아카데미 13:00	

함께하는 일상의 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나는 사춘기 시절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비로소 신앙을 처음 돌아봤다. 이제껏 나의 교회 생활과 봉사하는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온 자연스러운 행동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나의 간절한 마음을 구원의 감격과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 그때 가장 솔직한 나를 발견했고 가장 많이 울었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고 섬세하게 만났다.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나니 신에 대해 학문적으로 다가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게 되었다. 몇 번의 교회 수련회에서 감정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신학과에 진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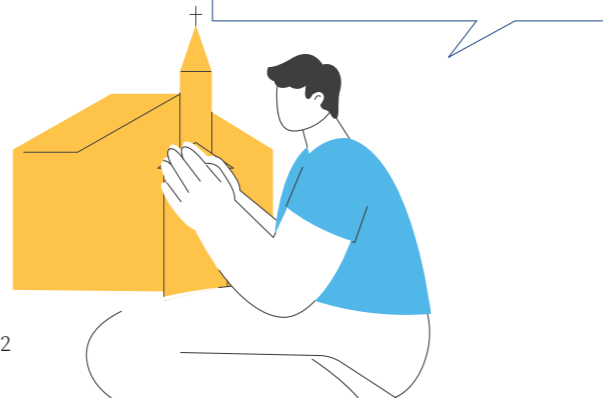
입학 후 풍성한 채플과 수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영적 성장을 함께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대면·비대면 상황을 오가며 낯설고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때에 맞춰 허락하신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삶에서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일상이었다.

태어나 오늘을 살아내기까지 내 삶의 도안이 이러한 도구들로 이렇게 그려질 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을 진행시키는 중이시고 그 확신은 명확하다. 그 안에 우연은 없고 불행 또한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감격은 내게 가장 소중한 20대의 추억이 될 것이다. 은혜를 먼저 누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오늘 나의 옆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평범한 일상에, 우리의 삶을 '함께'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에서 예수를 흘려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단단히 생겼다. 교회에서 올해 처음 초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 흘러온 사랑이 그때의 나를 빚어냈기에 관계의 중요성을 몸소 느낀 만큼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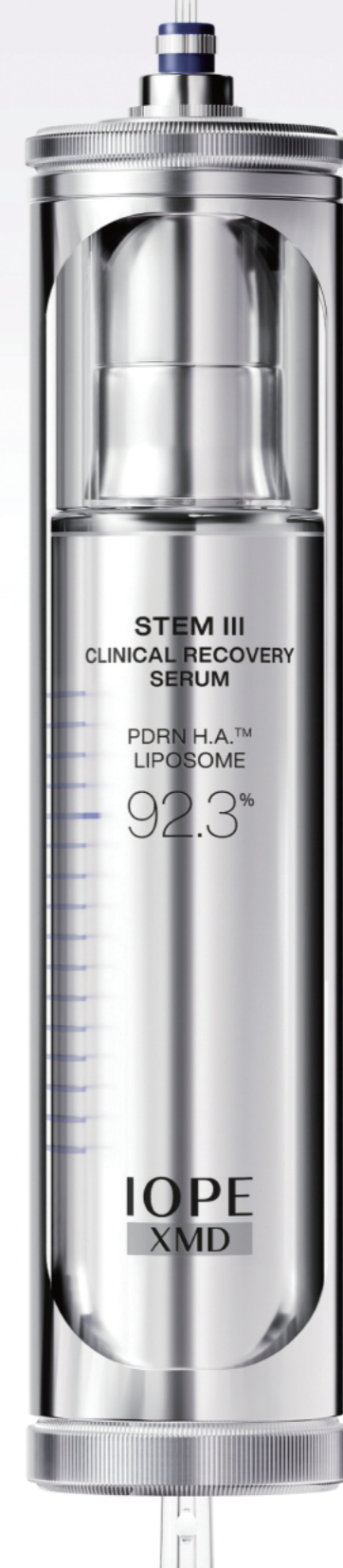
시 흘려보내고 싶었다. 6학년 여자아이들이 교회를 재미없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보다는 나이 좀 많은 언니의 역할로 다가야겠다는 마음에 마라탕 데이트를 신청했다. 최애 음식을 사준다는 젊은 여자 쌤의 제안이 신났는지 뭘 듯이 기쁘하고 웃까지 맞춰 입자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다. 마라탕과 빙수를 먹고 네컷사진까지 찍고 나니 아이들과 나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번 같이 웃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나만의 작은 사회를 만들어가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이들과 도움을 주고받는다. 교회는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이지만 옆 사람과 나누는 안부와 일상으로도 위안과 웃음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그 삶이 지속 되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내 삶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는 친구, 부모, 선배를 통해 흘러온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건 내 인생의 축복이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발자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다져가며 이웃과 함께 먹고 함께 웃는 사이가 되어보자. ♪ 글_혜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웃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최초의¹⁾ 피부과 관리²⁾ 비교



XMD STEM III
CLINICAL RECOVERY SERUM

검증된
물광플러밍³⁾



1) 자사 최초 2) 검증된 피부의 피부관리를 의미 3) 보습에 의한 피부 물광 부스팅 효과를 의미함

NEW 아이오페 XMD 스템3 클리니컬 리커버리 세럼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마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서울YWCA 새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회원
1,349명
11단체

기간 4월 14일(월) - 6월 27일(금)
접수 6,175점(목표 6,500점의 95.00%)
회비 185,250,000원(목표 195,000,000원의 95.00%)
단체상 1등 재정부 742점
 2등 여성참여팀 409점
 3등 강남청소년센터 338점

특별상 재정부 여성참여팀 강남청소년센터
 누리봄 소비자·환경팀 시설운영·사업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흥보출판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국제협력팀
 여성능력개발팀 회원활동팀 청소년팀
 (14개 부서)

정기회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록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민아 강민지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윤정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강혜진 강효미 경규연 계속화 고경혜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옥 고홍애 공명주 공민호 공민희 광동윤 광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수영 구연미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지혜 권태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원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형
 김동화 김라엘 김말녀 김명수 김명희 김문희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정 김미희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보명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자 김선화 김성민 김성민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연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남 김순임 김순자 김순해 김시은
 김시은 김 신 김애숙 김양선 김에스터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옥 김영해 김예은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오경 김옥민 김용관 김용숙
 김용오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경 김유미 김유애
 김유진 김윤경 김윤나 김윤전 김윤정 김윤종 김윤지
 김윤지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총
 김은혜 김익동 김인석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은 김정은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채린 김철규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춘자 김충현 김태경 김태숙 김태연

김태연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태호 김태희
 김통범 김하영 김하은 김한규 김해정 김항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원 김형철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나미정
 나소영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인화 노일권
 노정자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다경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신웨이 마재은 마초희 맹은주 명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승자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종숙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난영 박노영 박노영 박덕규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민호 박병주
 박상수 박상영 박상우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외정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경 박윤슬
 박윤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숙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주원 박지선 박지연 박지훈
 박 진 박진용 박진향 박진화 박찬인 박채원 박채원
 박초순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 현 박현선 박현선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주 배은진 배정미
 배정연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명숙
 백선옥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운선 백은엽 백정금
 백지우 백찬현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서경희 서근배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민경 서빛나
 서숙경 서승범 서옥덕 서원석 서은경 서정연 서지영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서혜승 서혜원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연석 성윤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근희 손소영 손승혜 손채린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욱의 송윤주

송윤화 송은아 송이라 송재임 송종우 송창은 송태연
 송혜승 신경아 신동선 신민자 신상용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종인 신지숙 신진실 신찬용 신창미 신총섭
 신현경 신현경 신현미 신현숙 신화옥 심경호 심창섭
 안선희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숙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혜리 안희란 양다현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영 양행옥 양현옥 양혜진 엄수길
 엄현진 여명진 엄문철 엄미행 엄용희 엄은애 오경신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충민 오해동 오혜영 온기석
 왕정애 왕정한 용현중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우훈희
 원경록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승효 유예나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환 유주빈
 유진아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복례 윤상은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효석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견학 이경근 이경노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연 이경연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순 이금재
 이금희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민석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주
 이봉희 이상길 이상명 이상옥 이상원 이상윤 이상지
 이상해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성자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국 이승연 이승윤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연수 이영대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우 이영자 이영준
 이영진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균 이용호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빈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혜 이은희
 이의곤 이인석 이인성 이임수 이재건 이재경 이재곤
 이재길 이재욱 이재욱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길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숙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한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희 이창희
 이재진 이태림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나 이항재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한국 이현수 이현미 이현아
 이현옥 이혜미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준 이혜진
 이호섭 이호정 이희전 이희찬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성준 임승훈 임양수 임옥영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연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은 임지현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명자 장민조 장보경 장석귀 장선희
 장성호 장세린 장수용 장양순 장영옥 장영은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장주현 장지현 장철승 장현주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규 전병우 전부영 전부일
 전상숙 전선희 전소영 전순덕 전영삼 전영지 전오연
 전윤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욱 전현숙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대필 정동신 정문옥 정미선 정미성
 정상미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여백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윤정
 정윤희 정윤희 정은주 정이현 정재현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영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정한얼 정해윤 정현서 정현승
 정현아 정현주 정혜경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희경
 정희주 제오복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영 조규원
 조규원 조길수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재 조성환 조성환 조성환
 조세환 조애자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정희 조준하
 조중희 조진영 조한솔 조한준 조형윤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조희수 주다엘 주동일 주라엘 주명애 주영민
 주하진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진가인 진부향 진영선
 진재승 차경희 차미연 차미연 차하나 채승화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문희
 최민영 최 불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주 최은영
 최유나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인숙 최정현 최정호 최종대 최준명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지희 최진숙 최현경 최현주
 최현주 최혜원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미미
 한민희 한성우 한승연 한승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운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찬호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서희
 홍선미 홍성옥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명숙 황보영
 황선미 황순분 황어진 황왕연 황용하 황윤희 황지희
 황현순 황홍숙

Vanessa Shaffer (주)건축사사무소빅 (주)미래공간인디맨
 (주)블룸컨버전스 (주)지인에프엔씨 그린에이전시
 김진경디자인스튜디오 노무법인 한승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센트럴디자인 슬램건축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아틀리에 더 라엘 아름답고희한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조명팩토리
 주식회사 아이통교육 주식회사 아키웍스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주식회사콤마코리아 진한의원 파티인테리어 향기나무

일시후원

일반
 강경자 강경혜 강관모 강선자 강시은 강영수 강유민
 강인모 강한길 강형석 강형주 강혜경 강호정 강훈덕
 계정란 고대연 고미숙 고은경 고은샘 공민호 공지성
 공지혜 권경옥 권미리 권은희 금도연 김경숙 김경아
 김경영 김경자 김광미 김귀분 김귀임 김근순 김길성
 김륜홍 김말희 김미경 김미영 김민경 김봉숙 김봉주

김선미 김선숙 김선애 김성순 김세경 김수영 김숙희
 김숙희 김순옥 김순희 김연옥 김연주 김영란 김영미
 김영애 김옥섭 김은주 김용희 김우택 김운자 김은희
 김은희 김재경 김재민 김재희 김 정 김 정 김정자
 김정희 김지수 김지태 김추자 김태수 김태원 김학희
 김현수 김현아 김현옥 김형분 김형철 김혜숙 김호정
 김효순 김효진 김희덕 김희선 김희수 김희연 남윤정
 남현미 목경자 문계자 문정숙 문현주 민선영 민소연
 박경아 박경은 박경희 박미라 박민영 박새영 박서빈
 박선영 박성진 박소영 박아영 박영신 박영애 박영희
 박용식 박일지 박정애 박정희 박준경 박진옥 박진희
 박춘화 박태희 박혜영 박희균 박희연 박희진 반효정
 백명자 백수영 변승민 변혜경 서동욱 서준교 석명선
 성혜옥 손금연 손민수 손채아 송오엽 신동원 신완철
 신재원 신혜인 심미경 심영자 심유리 안미정 안성준
 안창락 안형정 양영만 양정자 양진명 엄원숙 엄병윤
 염 정 오소연 오정순 오조묘 오지혜 오희영 우성도
 원영경 유경숙 유영신 유병숙 유숙상 유승자 유윤주
 유제천 유혜진 윤소정 윤수진 윤애경 윤옥균 윤정인
 윤지원 이규정 이금자 이금향 이나영 이래완 이 립
 이매우 이명순 이선희 이세미 이수자 이수정 이숙미
 이숙자 이순주 이순희 이어진 이예승 이용중 이은미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재희 이정란 이정미 이정희
 이종철 이주아 이주자 이주희 이지은 이진숙 이추성
 이춘열 이충환 이푸음 이한빈 이항자 이현정 이형란
 이해영 이해준 이화진 이희원 임선영 임지영 임 현
 임혜준 장경미 장경익 장소영 장영원 장영자 장은수
 장은숙 장지수 전경숙 전성자 전희진 정문옥 정옥재
 정용진 정용희 정유경 정진영 정희숙 제갈정희 제금자
 조근엽 조민자 조숙자 조영관 조영룡 조영리 조영옥
 조점순 조주은 조춘식 조혜진 주현우 주효진 진정현
 차은미 차정미 차정민 천귀매 최경옥 최대성 최미양
 최성애 최성용 최영자 최영태 최윤정 최재숙 최정우
 최정희 최현라 최혜실 최홍규 최효선 최희경 최희연
 하성자 하은주 한상조 한아림 한영희 한정숙 한지연
 한지연 한지영 허미숙 홍숙표 홍애경 홍연표 홍은자
 홍인숙 황명자 황현숙 황희원 최정희 마인즈아이

일시후원

강민아 강혜진 고경화 김강석 김로건 김소양 김영미
 남현주 박군학 박문숙 박미선 손경옥 오세경 오점희
 유영년 윤창식 이민석 이애경 이윤희 이재숙 이재홍
 이희전 전경아 정미혜 차미연 천귀매 천 희 한아소
 한영순 홍은주 황경희 (주)비파인클라우드 (주)선한
 산들축산(최경배) 정동(이수복) 현대공조(노상윤)

어린이

민세영 염하진 진유진

Y-틴

민세영 이정석 지서영 지서진 홍지오

대학생

강해솔 김도윤 김정연 김태희 석예림 이 채
 조 윤 진선윤

유지


이경재

평생

김연우 김한나 송순용 오순정 윤바다 윤상은
 이 다이아나 서윤 이건우 이 행 장능자 전병규
 조홍신 주라엘

기업·단체

(주)디엠라인 (주)한배엔지니어링 H.I콘트를
 굿데이서비스(조영복) 더세븐파트너스 부창수산
 삼성전자 삼우상회(김해관)
 심마팍 주식회사 월드유니텍 주식회사 후마니타스아카데미

※ 명단에 누락된 회원님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705-6008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 7월

도너월 업그레이드



• Y-Partner Club (5천만원 이상) 권도웅

특별 후원



- 2025 특별행사
고선혜 김덕신 김선자 김은자 김 형 민병옥 민흥숙
송길례 이복희 이숙현 이연배 이유림 이은주 이주영
이행자 이희전 정영숙 지복임 차귀숙 최 불 최성애
한혜영 홍정현 알비레오
역대이사모임 여성능력개발위원회 회원활동위원회
- 청(소)년 장학금 따뜻한나무장학회
- 이화여고 Y-틴 간식 후원 이은숙 명예위원

재능 기부



- 최문희(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7·8월 회보 '환경에세이' 칼럼 기고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2025년 7·8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복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남은희	민혜경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예정원	우영숙	이연배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모아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불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카페	창진					

일반 후원



강서현	고려옥	고선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혜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은숙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월요카페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소식

이영자 명예이사
7월 9일(수) 소천

전현숙 이사
7월 17일(목) 부친상

극단 축 서울YWCA 회원동아리
7월 27일(일) 제43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에서
우수상(단체), 최우수 연기상·우수 연기상(개인) 수상

강수미 공간운영팀 간사
8월 13일(수) 부친상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복멘토링 프로젝트'의 복멘토가 되어주세요

복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서울YWCA회관 대관 안내

서울Y는 강연,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주주총회,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관 시설을 운영합니다.

평생 회원



김연우



김한나



송순용



이건우



이 다이아나 서울
대치자원봉사회 운영위원



이 행



장능자



조홍신
(주)오토젠 대표이사



주라엘

오순정 윤바다 전병규

대강당

좌석 의자 200석, 의자·테이블 100석 (원형테이블은 개별 렌탈)
기자재 인터넷선, 마이크(유선·무선), 스크린(고정·이동형),
피아노, 현수막설치봉
사용료 2시간(기본) 40만원(VAT별도)부터
문의 02-3705-6093



극한기후와 헝거스톤의 경고

글_ 최문희 홍보출판팀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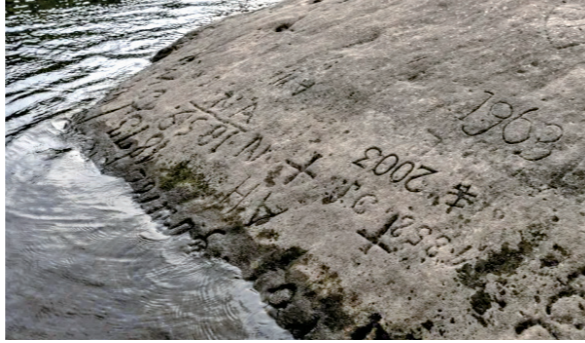
“내가 보이면 올라라.”

언뜻 무거우면서도 슬픈 느낌의 이 글귀는 70년 만의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을 겪었던 지난 2022년 유럽의 엘베강에서 모습을 드러낸 헝거스톤(Hunger Stone)에 적힌 내용이다.

‘배고픔의 돌’ 또는 ‘슬픔의 돌’로 불리는 이 기근석(饑饉石)은 강물의 수위가 심각하게 낮아졌음을 경고하는 장치다. 물속에 잠겨 있다가 심한 가뭄 탓에 밖으로 드러난 표지석에는 1616년이라는 해당 연도도 함께 새겨져 있다고 한다. 엘베강의 또 다른 헝거스톤에는 가뭄이 야기했던 흉작·식량부족·물가상승·굶주림 등으로 이어지는 재난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배고픔의 돌’이라 이름 붙인 연유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일상용어처럼 듣게 되는 ‘기후위기’는 이제 ‘극한기후’라는 더 다급하고 강한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지구 곳곳의 재난과 새로운 이변에 대한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기후생태가 야기하는 각종 위기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자연에 가한 여러 행위를 되돌아보자는 반성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지만, 가장 큰 관건은 인간의 실천의지라고 한다. 1백여 년 만에 최저수위를 기록한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침몰한 20여 척의 독일 군함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를 두고 인간의 민낯을 직시하라는 또 다른 경고라고도 했다.

유럽 곳곳에서 헝거스톤들이 모습을 드러냈던 이유는, 북반구에 건조한 날씨와 극심한 폭염이 겹친 탓이었는데 이 현상의 나비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다. 우선 유럽의 젓줄로 불리며 물류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 수위가 40m 아래로 내려갔다. 이는 바지선이 뜰 수 있는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라서 수위가 더 낮아지면 원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된다. 게다가 40℃라는 이례적인 폭염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밀을 비롯한 농업생산량 감소가 현실화됨으로써 헝거스톤의 경고를 체감하게 만들었다. 강물 부족은 수력·원자력 발전에도 차질을



2018년 독일 엘베강에서 목격된 헝거스톤. ©AFP연합뉴스

빛과 전력부족 탓에 생산 공장 가동을 제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국도 건조한 기후가 야기한 대형 산불로 큰 재난을 당했고, 세계 2·3위 옥수수 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농업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자연의 섭리가 두려운 점은 건조 상태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수분 증발이 심해지고, 이는 더 세찬 강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폭염의 결과로 1년 치 강우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홍수소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도 자연의 균형이 와해된 결과물이다. 홍수 역시 가뭄처럼 농작물에 치명적이고 식량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

3년 전 우리나라도 마른장마 끝 무렵에 닥친 115년 만의 폭우로, 서울 도시의 넓은 도로에 넘실거리던 물길에 자동차를 동동 떠다니게 했는데 그 낯설고 두려웠던 느낌은 지금도 강하게 뇌리에 남았다. 올해도 기후변화 현상은 번덕스럽기 그지없다. 봄이 여름으로 자리바꿈할 즈음에 이상 한파가 과일나무의 꽃들을 얼어붙게 하더니, 여름 초입부터 치솟은 기온과 건조하고 세찬 바람이 견잡을 수 없는 산불을 여기저기 일으켰다. 산불의 상처에 미처 약도 바르기 전에 이번에는 짧게 끝난 장마를 밀치고, 쏟아붓듯 내리는 괴물 같은 폭우가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나타났다. 물의 위력을 과시하듯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산을 무너뜨리고 집과 농작물을 휩쓸며 인명피해도 야기했다. 폭염과 폭우는 결국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뭄성 산불과 홍수가 번갈아 일어나는 현상을 ‘기후채찍질’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 담긴 따끔한 꾸짖음이나 헝거스톤의 무거운 경고는 서로 맞닿아 있는 듯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후대를 위해 헝거스톤을 설치하면서 앞서 경험한 바를 남기려한 선조들의 마음이 크게 느껴진다. 지금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경건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 피부 탄력 피로도 12시간 후에도 3.5% 개선 상태 유지. 시험기간 : 2019.10.17~2019.10.18 / 시험대상 : 만 20~59세 여성 20명 / 시험기관 : 글로벌의학연구소



안인서

서울Y 5대 사무총장
1904-1991

경기도 인천(현 인천광역시)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안인서 선생은 이화전문학교 음악과에서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YWCA와 인연을 맺게 된다.

1926년 졸업 후에는 일본 청산학원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평북 송덕학교, 전북 기전여학교, 서울 양정고등학교에서 1938년까지 교편을 잡았다.

이후 선생은 중앙교회 전도사로 교역에 힘쓰다 1947년 연합회 지방부 간사로 본격적인 Y 활동을 시작했다.

그해 11월 세계YWCA 지도자 훈련 차 도미해 9개월간 미국Y 청년회 사업을 연구·시찰하고

1948년 서울Y 총무(현 사무총장)로 취임, 1953년까지 일했다.

해방 이후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서울Y를 이끌며 특별히 Y 회관 마련을 위해 헌신했다.

신의경·김성실 선생과 종일 서울 시대를 돌아다니고 나면 버선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르텄다고 회고한 바 있다.

신앙이 철저한 선생은 직원 예배 때마다 감명 깊은 설교와 기도로 젊은 간사들을 인도했고 부드러운 인품과 검소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었다. 퇴임 후에는 감리교신학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했으며 서울Y 평생회원으로, 정동교회의 장로로, 남은 생을 봉사하며 지냈다.



국제훈련에 참가한 안인서 선생(오른쪽 맨 앞)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필라테스·피트니스 3705-6030
서울돌봄과살림 가사돌봄미·산후조리사·아기돌봄미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ydp.seoulwomanup.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센터 www.gangnamyc.or.kr 544-9725~6